◇21세기 경희의 위상을 위한 제언 〈2〉

전환의 문턱에서 ··이것만은 해결하자

기획취재 지방학생의 요람 기숙사 태부족

시설확충 등 근본대책 마련 요구

이종상(전자·4)군의 학교로 가는 발걸음이 요즘들어 가볍다. 염원하던 기숙사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군의 자택은 서울 공항동, 이곳에서 작년 1학기까지 통학을 한 이군은 왕복 5시간 정도의 통학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앞에 자취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통학 5시간은 물론 교통체증에 시달리느라고 거의 활용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자취방 역시 습하고 외풍이 심할 뿐 아니라 연탄가스의 위험을 항시 안고 살아야 했다. 서천리에 있는 자취방의 상당수가 닭장이나 축사를 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숙사 입주의 희망을 항시 안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학기에 과 수석을 차지해 기숙사에 입주하게 됐다고 한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학교앞에서 득방 하숙을 가정하면 35만원선, 2명이상이 쓰는 합방의 경우도 최소 25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턱없이 오르기만 하는 부동산값의 여파로 자취비용 또한 이에 못지 않다. 따라서 서울에 특별한 연고를 갖고 있지 못한 지방학생에 있어서 기숙사의 입사는 '꿀'이라 말할 수 있겠다.

수원캠퍼스에 있어 기숙사문제는 더욱 절실하다. 서천리 부근에 몇몇 자취촌이 형성돼 있으나 이들의 수가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절대수가 부족한 형편이고 그나마 축사를 개조해 만들어진 것들로 30~50만원의 보증금에 10만원 정도의 월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캠퍼스타운의 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하면 대부분 십리밖수원이나 서울 등지에서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우리대학의 전체 기숙사 입사율은 서울이 총재학생 8천여명에 기숙사 정원 4백88명으로 약 6.1%이며, 수원의 경우 재학생 8천3백여명에 기숙사 정원 7백40명으로 약 8.9%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숙사 전체 학생의 7.5%정도로 학생 1백명당 7명 정도만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캠퍼스의 경우 정경대건물 뒤에 현 삼의원을 90년말 완공하면서 1백20명 정원의 기존 기숙사(현 국선관)를 체육특기생을 위한 기숙사로 전환하였고 현 삼의원에도 128명 정원이 각종 고시생을 위한 고시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실제 일반학생의 몫으로 남겨있는 기숙사의 정원은 240명(남 1백80명, 여 60명)에 불과하다. 수원캠퍼스 또한 체대특기생을 위한 국선관이 지난 3월2일 입주식을 가지고 기숙사시설을 보강했으나 기숙사정원의 수는 5백32명 (남 4백52명, 여 80명)에 불과한 형편이다. 물론 이 숫자에는 구국선관에 입주하게 될 고시생 및 대학원생, 일반 학생의 수를 포함한 것으로 일반 학생의 입주자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하면 '대학은 기숙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용인원은 총학생정원의 15%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비하면 우리대학은 크게 부족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령 자체가 국내의 대학중 한림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달된다. 서울대 기숙사인 관악사의 수용능력이 2천3백48명을 제외하고는 고려대 서울캠퍼스가 8백75명 건국대 서울이 6백30명, 성균관대 서울이 6백10명, 홍익대 3백명, 이화여대가 5백85명등으로 서울캠퍼스의 경우 유사대학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원캠퍼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방대학으로 최대의 인원을 수용하는 한림대가 7백31명으로 총 재학생의 29.7%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대학의 기숙사 수용인원이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수는 이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수원캠퍼스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일지라도 교통이 불편해 대부분의 학생이 시설 유지를 해야만 하는 제도다. 그러나 한 학기에 4개월만 운영되는 관계로 기숙사 자체에서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캠퍼스의 경우 캠퍼스내의 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기숙사의 확충계획은 없다. 다만 수원캠퍼스의 경우 국선관의 개보수가 끝나는 오는 4월경 개관할 예정이어서 약1백25명 정도의 정원이 더 늘어날 계획이다. 그러나 충원되는 구 국선관의 입주생 선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현재 구 국선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생들은 대학원생을 포함, 각종 고시생 및 일반학생들로 수요에 비한 공급의 폭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어서 입주자들의 요구를 수렴하며 적절히 배분하는 문제가 최근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당국은 이를 적절히 수용하는 문제와 함께 당국자 및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한 캠퍼스 타운의 형성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규모문제뿐 아니라 공동체의식의 수련을 쌓을 수 있는 제 2의 수련장으로써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제는 학교 재학생 모두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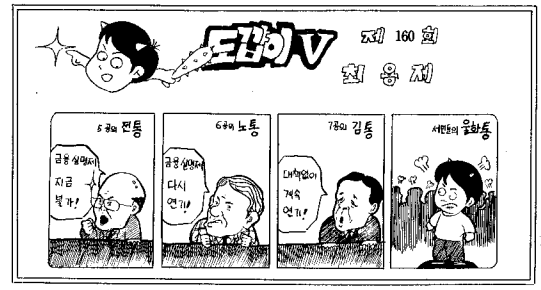
전문가의 말

우리 대학의 경우 전체 재학생수 중 약 7%만이 수용되고 있는 현실을 볼때 이는 우리대학의 정원수에 대비해 보잘것 없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대학기숙사라고 지칭할 수 없을 것 같다. 앞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당국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양한 종류의 기숙사를 건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고단체·경제단체등 기타의 사회적 단체가 대학기숙사의 건립에 관심을 가지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학 기숙사의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숙사의 문제가 대학생의 복지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변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떻든 우리는 우리의 능력범위내에서 우리의 욕구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강 희 원
〈법대 교수·삼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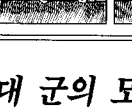
문민시대 군의 모습 지켜볼 터

—이동균(토목·80년입학)동문을 만나

군사정권하의 89년, 명예선언을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화를 외친 이동균(토목·80)동문을 만나보았다.

폐쇄된 사회속에서 나름대로의 가치관 정립과 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그는 젊게 생활해서인지 아직도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요즘 자동차부품유통회사에 근무하는 그는 직장생활이 최소한의 경제적 요구만을 해결할 뿐 자기실현구조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한다.

학교생활에 적응하면서 2학년때 ROTC에 지원한 그는 83년 3월 임관하여 전방에 소대장으로 배치된다. "처음에는 북한군 1개 소대와 씨워 이길 수 있는 소대로 책임을 당하는 군인이었는데, 차츰 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총을 들고있고 그 총은 누구에게 겨누어져 있는가?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군의 부정, 인권유린등 문제의식을 느낀 그는 현실을 알기위해 노력했다. 역사·철학서적들을 통해 공부를 시작한 그는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를 보면서 전체적인 자기반성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올바른 의식을 가지니까 더 힘들어지고 좌절감을 느꼈지만, 정확한 나침반을 얻고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지도를 찾았습니다."



87년 대선 당시 회일적인 선거부정에 참여한 경험을 모두 폭로하려 했으나 상급자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때문에 다시 좌절하고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88년 청문회등으로 군인들에게 타격이 커 정치군인들에 대한 진실한 반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각자에서 고민하는 애국군인과 발전하는 민중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위해 89년 1월4일 기독교회관에서 명예선언을 했습니다." 군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역할과 군내부의 호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불명예 제대를 한 그는, 윤석양 후원사업회를 결성하고 군인들의 인간적, 정치적 권리를 위해 노력했다. "91년 강경대사건은 평소 폭력정권하에서 필연적으로 배태될 수밖에 없었고, 병역의무의 허울도 살인을 강요받는 전경은 정권유지의 사조직이므로 없어져야 합니다"며 전경해체의 필요성을 말했다.

범국민 대책회의에 참여해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91년 12월에 출소하여 구로동 지역운동으로 탁아소에서 활동하던 학교후배를 만나 92년 4월 결혼, 지금은 5개월된 아들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현재 윤석양후원사업회 사무처장직과 민주동문회 공대동문회장을 맡고 있으며 후배들의 적극적인 동문회 참여를 당부했다.

〈안지훈記者〉

취재노트

◇…오늘의 퀴즈

1. 窩형들의 스테미너가 필요합니다.(띠~ 청춘사업)
아./ 틀렸습니다.
2. 법적효력이 없습니다.(띠~ 동거)
아./ 안타깝네요.
3.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죠.(띠~ 오늘은 2차 안한다는 술약속)
네./ 참 근절됐습니다만
4. 종이한장이지만 큰 힘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최선이 필요하죠.(띠~ 등록금합의서)
네, 네./ 정답입니다.

재산 감추는 재산공개

◇…재산 감추는 재산공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직과 신용, 근검절약으로 처부한 것은 결코 죄가 아니며 오히려 신성한 의무다. 프로테스탄티즘을 기반으로 금욕주의 적 직업윤리를 확고히 수립, 굶임없는 부정부패가 신한국 창조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명분보다 더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재산공개로 재산을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소모성 논쟁 지양론(?)

밤늦은 서천골 강남행 스쿨버스안에서 난데없는 논쟁이 있었다는데.

한치의 들어섬 없는 입식 窩형들의 고속도로 입식승차 불법론(論)과 운전기사아저씨의 '한길을 더'(들어가자는)론(論)이 맞섰던 것.

해마다의 교통대개혁론(論)이 얼마나 더 계속 되어야 편안한 하교길 보장받을 수 있을지 감감할 뿐이오.

◇…애틀 장난

이리와~
그거내놔! 위험하단말야
—흥! 너도 가지고 놀잖아.

◇…충성도 줄지만

봄바람이 살살 부는 교정을 걷다가 깜짝깜짝 놀라 경기를 일으키는 窩형들이 있다고.

체복을 입고 씩씩하게 걷다가 순간적으로 뿜어내는 우렁찬 경례소리 '충성'이 그 원인이라는데.

규율도 좋지만 군대도 아닌 학교에서 다른 학우들 귀에 거슬리는 큰소리는 조금 자제하심이 어떨런지요.

그냥 돌아가셨다는데.

노트주 들어보니, 멀리서 마음껏서 들렸는데 반기는 사람없어 좋은 시간 가질 계획도 취소하고 돌아섰다고.

무등산에 가면서 그 정도도 예상 못했는지. 한맺힌 사람들 응어리부터 풀어주고 인사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을까 싶소.

校園路

한정된 공간 효율적 이용 절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본질과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과 함께 본질을 볼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상은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세심한 관찰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본질 파악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쏟는 것은 올바른 실천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지난 14일 문리대 뒤 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학교측과 학생들의 책임 미루기로 이어졌으나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이번 화재로 가건물에 자리잡았던 생물학과 야간부 학생회가 문리대 학생회실로 임시이전했고, '한알'을 비롯한 4개 동아리가 보금자리를 잃었다. 화재의 일차적 책임은 학생측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얼폐원은 잠자던 2명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 말을 모두 인정한다 할지라도 번호를 맞추어야 하는 자물쇠를 열고 외부인이 들어온 점에 대해서는 분명 관리상의 책임이 있다. 또한 불필요한 무단취침에 대해서도 반성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 학생들의 반성과 함께 두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라면 건물의 전기안전상태가 불량한 채로 방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화재현장 혹은 부근에 있었던 소화기와 소화전이 단순한 전시품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 화재는 단순히 학생들의 부주의와 학교측의 소방시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어난 것일까. 결코 아니다. 이런 현상속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따지고 보면 이번 화재의 본질적 원인은 공간 부족이고 공간 부족의 현상적 결과가 화재라고 할 수 있다. 전기 안전시설이 미비한 조립식 가건물에서의 화재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겠지만 재정과 시간의 어려움으로 그것은 장기적 전략이라 하겠다.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은 주어진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학교측과 학생들의 진실한 대화로 이번 화재가 발전을 위한 아픔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학술세미나

·제 목: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의 형성과 한국·멕시코관계의 정립
·일 시: 1993년 3월 23일(화) 09:30
·장 소: 경희대학교 본관2층 대회의실
·주 최: 경희대학교 아시아, 태평양지역연구소

멕시코 Guadalajara대학 태평양연구소

▪세미나 일지▪

주 제	발 표 자	토 론 자
Trading block building in the Pacific Rim: Mexico VS. Asia Pacific under NAFTA	Palacios교수	박기안교수
Perspectives of Korea on NAFTA and APEC	박명광교수	이기종교수
The prospects for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Mexico	백승헌교수	석철진박사
Food security in the Pacific Basin: some implications for Asian countries	Hernandez 교 수	박종국박사
The sunset of Japanese agriculture: will her experience be relevant to Korean agriculture?	Falck 교수	박우성교수

아시아·태평양지역 연구소

'93 대학 군장학생(장교) 모집안내

1. 지원자격
가. 현 4년제 대학 1, 2, 3학년 재학생
나. ROTC(학사)로 재학중 수료시 ROTC 1, 2학년
다. ROTC(학사)로 재학중, 제대시 미충원자 1학년
2. 모집인원

학 년	인 원
1	1992. 1. 1. ~ 1992. 2. 28. 출생자
2	1991. 1. 1. ~ 1991. 2. 28. 출생자
3	1990. 1. 1. ~ 1990. 2. 28. 출생자

※ 1, 2, 3학년 모집인원 : 2학년 기준 1학년 1명 3학년 1명

2. 모집분야

분야	전공학과	인원	분야	전공학과
행정	경제학(구 사회), 통계 경제학(구 사회), 사회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법학, 경영학, 회계학, 무역학, 정치외교학,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불어불문학, 독어독문학, 사학, 철학, 문헌정보학, 교육학, 심리학, 가정관리학, 의류학, 식품영양학, 체육학, 음악학, 미술학, 연극영화학, 의예, 치의예, 한의예, 간호학, 약학, 수의예, 생명과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원자력공학, 산업공학, 컴퓨터공학, 경영학, 무역, 사회, 회계, 생명, 전자, 기계, 토목, 건축, 기계, 산업, 컴퓨터, 경영	기술	전자, 통신, 전자, 기계, 화학, 토목, 건축, 원자력, 전기, 산업, 컴퓨터, 경영, 무역, 사회, 회계, 생명, 전자, 기계, 산업, 컴퓨터, 경영

※ ROTC 장학생 제도 현황에서 지원자는 모 ROTC 장학생 대체 전 병과 지원가능

3. 모집일자

구 분	일 자	비 고
지원서 교부 및 접수	93.3.15(월)~4.9(금)	각 지역별 부대 연대급, 동대, 민원실, 연대, 보병 대대급
학과시험	서울경평로로 내려	대학학과시험 : 고교과목(인문계 고교졸업자)부분
신체검사, 면접, 신분조사서 작성	93.4.26(월)~4.27(화)	접수시 지참물소
3. 합격자 발표	93.5.20(수)	접수시에 지시
최종합격자 발표	93.5.30(수)	접수시에 지시 해당자에 통보
7. 학력고사 성적	1학년:93년도 전기고졸자 2학년:93년도 전기고졸자 3학년:현재	학교교사에게

4. 구비서류

1차서류(접수시)	2차서류(지원면접시 관련)
지원서 및 제작비(별도부담) ····· 1부	제학교증명(제출서류) ····· 1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각1부	제학교성적증명서 인증증명서 ····· 1부
고교졸업증명서 ····· 1부	제학교증명서 제신체 검사증명서 ····· 1부
연예협회증(3×4cm) ····· 5매	5매

5. 복무기간

년	계약기간(3학년부터 1개월간 교육기간)
1	2년간 ROTC 1학년 및 ROTC 1학년(학사과정)
2	1년간 ROTC 2학년(3년)
3	6개월

6. 신체검사기준

구 분	내 용
시력	0.5~1.0
청력	전음성 1.2이상
체중	50~80kg
기타	나안 0.5이상 (교정 가능) 두발 등 (10가지)
혈압	정상 상태 혈압 정상 상태
혈액	헤모글로빈 : 10g/100ml
소변	요단백 (-) 요당 (-) 혈액 (-)
기 타	혈액 검사
기 타	흉부 검사

해 군 본 부

'93학년도 모국수학생 대학(원)과정 국비장학생 선발요강(안)

1. 지원자격
1993학년도 현재 국내 각 대학(원)(박사과정 제외)에 재학한 모국수학생(1학년제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나. 고교시절에 공헌도가 높은 자로 인정되는 자
다. 가정이 빈곤하여 학업계속이 어려운 자
라. 모국수학생회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자
2. 대학별 선발 예정인원 : 1명
3. 장학금 수혜금액 : 1인당 년간 1,100,000원(2회 분할 지급)
4. 추천 요령
가. 해당된 인원 범위내에서 각 대학 모국수학생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추천
나. 구비서류
○추천서 1통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기타 추천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다. 추천서 제출
○접수기한 : '93. 3.27(토)까지
○접 수 처 : 교세교육전통원 학생지도과(전화:747-0653)
○접수방법 : 각 대학별 일괄 제출
5. 장학생 선정결과 발표 : '93. 4.3(토) 각 대학별로 통보
※ 희망학생은 3.24까지 학생처에 신청 바람

서울캠퍼스학생처장

'94 학군 사관 후보생 모집 (R.O.T.C)

●모집인원 : ○○○○명
●지원자격
· 93년도 4년제대학 2학년 재학생
· 71년 1월1일~76년 3월1일 출생자(18세~23세 미만)
· 장교 임관 결격사유 없는 자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93년 3월1일~4월20일(학군단본부)
· 구비서류

지원서접수시	신체검사시
지원서 및 서약서 ·····1부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대학입학 및 1학년 성적증명서 ·····1부	·····각 1부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사진(4×5cm) ·····2매
사진(4×5cm) ·····1매	

●선발 : 대학성적, 신체검사, 체력검정, 인물검사, 품성평가
●합격자발표 : 93년 12월3일
●문의처 : 각 대학 학군단 본부

육 군 본 부

박물관 정기개관 및 VIDEO상영 안내

중앙박물관에서는 학생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학술자료로서 이용을 돕고자 하여 정기개관을 실시합니다.

1. 개관날자 : 1993년 3월16일부터 매주 화·수요일
2. 개관시간 : 13:00부터 16:00까지
3. 휴관 : 방학과 시험기간중 휴관, 단 휴관시에도 학술자료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VIDEO상영
가. 일시 : 개관시
나. 편수 : 하루2편식 상영
다. 내용 : 역사, 민속자료
라. 장소 : 박물관 세미나실
*원하는 자료 선택해서 볼 수 있음(목록은 박물관 연구실에서 비치)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장

병역특례제도안내

특례제도란?
국가산업의 기능인력지원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간 및 방위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해주는 제도
대상자 및 지원절차
○ 현역대상 : 특별법시행령에 규정한 국가 기술자격,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특례업체 해당분야 취업시 특례보충역에 편입
○ 방위병대상 : 국가 기술자격, 면허취득자 외에 대학2년 중퇴자 이하의 학력자에 대하여는 자격, 면허가 없더라도 취임후 1년 방위병에서 사회 또는 일의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기능사 자격, 면허를 취득하면 특례보충역에 편입(이 경우 직업훈련 기간도 특례보충역 복무기간에 포함됨)
총원기간 : 임영일 5일전까지
복무기간 : 3년
봉급 등의 처우 : 일반근로자와 동일함
문 의 처 : 각 시·도 지방병무청 특례과, 면원실
각 구·시·군 민원실, 노동부 각 지방사무소

병 무 청 장

'93 대학 장학생 모집 (학군·학사사관)

1. 모집인원 : 1학년(○○○○명), 2학년(○○○명)
2.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①1학년(71년 1월1일~77년 1월1일 출생자)
②2학년(70년 1월1일~76년 1월1일 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①기 간 : 93년 3월1일~4월20일(학군단 본부)
②구비서류

1차(서 원 서)	2차(신체검사시)
·지원서(사진첨부), 서약서 ·····각1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2통
·대학입학 성적증명서 ·····각1부	·제학교성적 납부 인증증명서 ·2통
	·사 진(4×6cm) ·····3매

4. 선발절차
①1차 : 서류전형(입학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②2차 : 신체검사
5. 합격자 발표 : 93년 8월10일

육 군 본 부

중앙박물관 공개강좌 및 관람안내

1. 중앙박물관에서는 국내·외의 역사적 유물과 민속품을 수집, 보관하고 이것들을 정시하여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관람케하고, 학술연구와 우리 선조의 전통문화와 유물을 이해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본관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시청각 기재(환등기, 비디오테이프)를 활용한 동기강화와 전열실 개관을 하고자 하여 귀 교수님의 강의시간(교양국사, 문화사)중 원하시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 통보하여 주시면 시전에 준비하여 관람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가. 제목 : 슬라이드, 비디오 상영 및 전열실 관람
나. 내용 : 1)슬라이드 : 본관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설명
2)비 디 오 : 역사, 민속자료
다. 장소 : 박물관 세미나실 및 전 전열실(도서관내층)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장